

한국자동차공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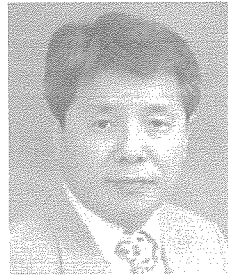
78년 설립 '자동차공업국가'의 견인역

예로부터 우리 인류는 보다 먼 곳을 보다 빠르게 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손쉽게 이동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러한 인류의 꿈은 오늘날의 자동차 문명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자동차는 우리 인간의 생활과 현대 과학기술 발달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자동차는 기계, 금속, 전자, 전기, 소재, 화공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서 자동차공업은 그 나라의 국력 및 산업기술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중추를 이루며 2000년도 세계 5위의 자동차 산업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자동차공학 기술을 선도해 가고있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는 197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자동차공업 및 학문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학술기관으로서 국내 자동차기술 발전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20세기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진 첨단 정밀기계로서 고도의 기술집약형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생산제품이며 그 나라의 기술력과 산업 발전을 나타내는 지수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처음 에콰도르에 포니를 수출하면서 '포니 신화'를 창



韓 東 哲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서울대 기계설계학과 교수)

조한 이래 자동차를 스스로 설계·제작할 수 있는 자동차공업국가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자동차공업 및 자동차공학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관한 학문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전국서 5천여 회원들 활약

자동차공학은 기본적으로는 기계공학을 토대로 여러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학문이며, 자동차산업 또한 기계, 철강, 소재, 전기전자, 화공 등의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판매 및 정비, 부품산업, 운송 및 화물업, 도로 등 건설산업, 유류, 보험, 교통관련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또한 자동차분야에 관한 직·간접 종사자는 1백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자동차기술에 대한 산업 전반의 기여가 크

기 때문에 자동차공학회의 역할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과 정보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여 2001년 5월 말 현재 정회원 및 학생회원 4천7백47명, 종신회원 3백43명, 도서관 회원 1백60사, 법인회원 1백31사의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지부와 호남·광주지부 등과 23개 분회에서 해당지역과 분회 회원들이 활동하여 우리나라 자동차공학 연구개발을 선도해 가고 있다. 특히 우리 학회는 산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성능 향상기술과 학계 및 연구계에서 연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정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학회 내의 세부적 활동을 살펴보면 자동차분야를 각 전문분야로 나눈 15개 부문위원회 - 가솔린엔진부문, 디젤엔진부문, 진동·소음부문, 구조강도부문, 동력전달계부문, 차량운동특성부문, TIRE운동특성부문, SAFETY부문, 전기·전자부문, I.T.S.부문, 재료부문, 연료 및 운할유부문, RECYCLE부문, 생산기술부문, 자동차기술교육부문 - 가 활동해 오고 있으며, 매년 춘·추계 종합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연간 6~8회의 각 부문별

1978년 설립된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우리나라 자동차공학기술을 선도해 가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5천여 회원들이 톨톨 뭉쳐 양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에 23개 분회를 두고 15개 부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학회는 매년 봄·가을에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4개국에서 1천4백여명이 참가한 서울 2000FISITA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2000년 6월에 개최한 '서울 2000 FISITA 국제학술대회'

년 11월 15일 아태지역 국제자동차학술대회(IPC-6)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34개국 1천4백여명이 참가한 '서울 2000 FISITA 국제학술대회(Seoul 2000 FISITA World Automotive Congress and Exhibition)'를 인터컨티넨탈호텔과 COEX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의 자동차기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국제 전기자동차학술대회 및 전시회(EVS-19)' 개최를 준비중에 있으며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개발 보급에도 학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는 매년 자동차기술 발전 및 연구에 공헌한 분을 선정하여 학술상, 기술상,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동차분야 국제 ISO 표준화 작업과 국내의 KS화 작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세계 속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㉞

학술강연회와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회원들을 위한 학술모임이 4~8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연간 6회 발행되는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은 학술지 평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학회 논문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1천5백부가 배포되는 영어논문집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논문제출자가 많을 정도로 국제 논문집으로서 수준을 인정받아오고 있다.

이외에 학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자동차공학회지」에는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을 중심으로 연구소 탐방, 산학협동, 자동차 역사, 국내 전문가

들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실질적으로 자동차공학에 대한 정보자료로서 크게 활용되어 왔으며, 「자동차용어사전」 편찬, 「자동차기술핸드북', 「국제단위(SI)계」 등의 자료를 발행하여 자동차 산업계의 전문인에게 많은 기술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작년에 국제학술대회를 서울 유치

우리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대외협력과 국제학술대회 개최라 할 수 있다. 세계자동차공학연합(FISITA)과의 효율적 협력 하에 전 세계 30여국의 자동차공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자동차공학기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1991